

구강궤양과 양측 아래팔에 통증성 부종으로 내원한 림프절 외 NK/T 세포 림프종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손상원 · 광승기 · 서수홍 · 주지현 · 윤종현 · 박성환 · 김호연

림프절 외 NK/T 세포 림프종은 매우 드물며 비강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pstein-Barr virus가 NK/T 세포 림프종의 발생에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질병의 경과가 심하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 연자들은 수 개월간의 구강궤양에 의한 윗입술의 부종 및 양측 아래팔에 통증성 부종으로 내원한 림프절 외 NK/T 세포 림프종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 73세 여자가 5개월 전에 발생한 윗입술에 부종을 동반한 구강 점막 궤양과 상지의 통증을 동반한 부종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구강 궤양은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개선이 없이 크기가 커지면서 통증과 부종이 악화되어 최근에는 식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양측 아래팔에 부종도 계속 악화되었으며 최근에는 통증이 심해져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학적 검사에서 체온이 39℃, 맥박이 100회/분으로 증가되어 있었다. 윗입술에 부종이 있었으며 안쪽 구강 점막에 궤양이 경계와 바닥이 지저분하였다. 양측 아래팔에 오목 부종이 중등도로 관찰되었으며 압통을 심하게 호소하였다. 이외에 안구나 비강, 심장, 폐, 복부에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촉진되는 임파선도 없었다. 아래팔 MRI에서 괴사성 근막염 소견을 보여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나 증상의 개선이 없어 조직생검을 시행하였다. 근육과 근막에 염증세포의 침윤이 심하여 만성 염증소견을 보였으며 특수 염색에서 항CD45RO와 항CD56에 양성을 보여 림프절 외 NK/T 세포 림프종으로 진단하였다. 윗입술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도 림프종의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항암제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하여 추적관찰이 중단되었다.

